책이름: 억만장자 시크릿

작가: 라파엘 배지아그

옮김: 박선령

이 책을 읽게된 계기: 우연히 책 책꽂이에서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진부한 얘기가 가득한 책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돈을 벌고 싶은가? 디테일을 챙기고 고정관념을 깨라!”라는 표지 문구를 보고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수성가 억만장자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억만장자가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부를 유지해오고 있는지 궁금했다. 또한, 이 작가는 5년간 직접 전 세계의 부자들의 성공 루틴, 방법, 가치관, 마인드 등을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해왔다고 한다. 추후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선택하게 되었다.

인상 깊었던 구절/부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186페이지에 있는 “힘든 길을 택하라” 부분이었다. 짧게 요약해보자면, 성공하려면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힘든 일을 자처해야 한다. 온갖 힘든 일이란 일은 다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쉬운 길이 우리를 좋은 결과로 이끄는 경우는 드물다. 편안한 사람은 헛된 것이다. 반대로 힘든 길을 택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었다.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쉬운 길로 쉽게 문제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이 어려운 것을 피하고 쉬운 것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어려운 길을 가야한다는 이 글의 요지는 아무래도 아무도 가지 않는 어려운 것을 택했을 때 더 다양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같았다. 내 생활태도와 마인드에 영향을 준 구절이었다.

그 외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다. 가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일이 괜찮은지, 정말 계속해도 되는것인지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들의 이야기에 귀가 팔랑거릴 때도 있고, 나 스스로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책에는 모든 대답이 다 담겨있다. 내가 왜 이 길을 택했고 이 공부를 해야하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모든 답을 알려주는 책이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야하는지, 잘 가고 있는지 의심이 될 때와 더불어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